패키징 발전 전략을 위한 업계 제언

Packaging Industry and Development Strategy

박 종 원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과장

한국포장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포장계'를 통해 패키징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패키징 산업은 그간 6~7%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패키징 선진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1년 3월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패키징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의 90%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패키징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패키징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시장규모를 '09년 27조원에서 '15년까지 4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출규모를 '09년 5.1조원에서 '15년까지 8.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패키징 산업 발전 전략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패키징 산업,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 산업'

패키징 산업은 상품(product)의 상태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합한 재료 · 용기 등으로 패키징(포장)하는 산업입니다. 패키징의 특성상 상품을 전제로 하므로 제조업(수요산업) 전반과 연관되며 특히 식품, 전기 · 전자, 화장품 · 제약 등이 주요 수요산업입니다.

패키징 산업은 최근 마케팅 중심의 비즈니스, 친환경 등 新패러다임의 확산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공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생산 중심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고객에게 '파는' 것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상품 경쟁력을 '플러스알파(+α)' 시켜 줄 고기능성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차단성 패키징을 통해 '조리된 밥' 시장이 창출되었고,

기존의 유리병 대신 맥주 PET병이 등장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녹색성장 개념이 부상하면서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생분해성 패키징 등의 개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패키징은 '제조업의 종점, 물류의 시발점'으로서 물류 효율화에 기여하는 바도 큽니다. 국내 대기업 S사의 경우 세탁기 패키징 개선을 통해 年100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 · 인력 부족, 그간 정부의 정책 지원도 미흡

세계 패키징 시장규모는 약 6,400억달러('09년 추정치)로 연간 6%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패키징 시장규모는 약27조원으로 소프트웨어(20조원), 바이오(15조원), 로봇(1조원) 산업보다 큰 규모로 파악됩니다. 고용규모 16.8만명의 노동집약적 산업임과 동시에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형 산업입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패키징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인 기술력 · 인력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이고, 플라스틱 패키징 등 고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측면에서도 패키징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전국에서 2곳에 불과하는 등 전문인력 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07년부터 생산기술연구원 내 패키징기술센터를 설립 · 운영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산업의 규모 · 중요성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시장규모 대비 예산규모'의 경우, SW산업, 로봇산업과 비교하여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날개를 달아줄' 패키징 산업의 도약을 위해

패키징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패키징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첫째, 패키징 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년부터 패키징 분야의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중 · 장기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기능성(고차단, 선택투과) 패키징, 친환경(생분해, 원천감량) 패키징, 물류 패키징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패키징 기업, 대학, 수요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R&D를 지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제조기반기술 전용 R&D 사업에 패키징 산업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입

니다.

둘째, 양질의 인력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장인력양성 교육과정에 고급 특화과정을 도입하는 한편, 패키징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패키징 관련 기업에 인턴 파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의 기술·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해외연수과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패키징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천·안산 등 패키징 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패키징 산업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향후 이에 대한 성과를 반영한 전국적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재, 포장기계, 물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패키징 정보은행'을 구축하여 소재, 가공·제작, 물류 등을 아우르는 기술, 트렌드,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패키징 기업에 대해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교육·바이어 발굴·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 패키징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패키징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내 패키징 산업의 국제적 입지 강화를 위해 12년 APF(Asian Packaging Federation) 총회를 유치하고, '15년 WPO(World Packaging Organization) 총회 유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내 우수 패키징 기업의 新시장 개척을 위해 Inter Pack(독일), 상해 전시회(중국) 등 해외 주요 전시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패키징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패키징 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패키징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